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역 개념' 추가 도시계획 틀 바꿔야

녹지 늘리고 대기 흐름 중시
 도로·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구축
 예방 우선 도시 재정비 서둘러야
 시·군·구 단위 보건소
 인력·재정·시설 추가해야

존 및 신규 조성 방안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공간에 대해 일정간격으로 녹지를 의무 조성하도록 하고, '바람길'을 통해 대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예방 우선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나 자전거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을 장려하고, 서민교통수단인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승객 밀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추가 배치나 노선 분산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 및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에는 방역이나 위생 개념을 추가하는 등 감염 최소화를 위한 시설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종료된 후에도 방역을 감안한 기존 시설의 개선도 요구된다.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도시의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감염병의 장기 유행을 대비해 시·군·구 단위 보건소에 인력·재정·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방역 개념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 흐름을 중시한 도시계획 및 정책, 도로 및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구축 등 위생·방역·건강을 고려한 도시 재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 다른 감염병 창궐 등에 대비해 기존 보건소를 확대 개편해 지방자치단체, 병·의원,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확진자 검사 및 발견, 치료, 퇴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능을 각각 나눠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 상시 방역 및 치료 업무를 시·군·구의 자치 사무로 하고, 시·도가 이를 관할하면서 중앙정부와 인력·시설·재정 등을 협의하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고 있다.

4개월 이상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크게 바뀌고, 대면 접촉을 자제하면서 상가 및 기업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광우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도시 역사에서 감염병의 창궐이 도시의 위생과 기반시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시민의 건강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지자체 중심의 감염병 방역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 비해 코로나 19 사태는 점차 누그러지고 있지만, 다시 코로나 19가 대유행하거나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방역과 위생 중심으로 도시 공간 및 행정 시스템의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코로나 19가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도시 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막고, 녹지·공원의 보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여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1년 연기

7월 무안연꽃축제도 취소

판단에서다. 수목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전남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금명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수목비엔날레는 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시·진도군 일원에서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열릴 계획이었다. 15개국 160여명의 작가 참여가 예정됐었다.

무안군과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도 최근 회의를 열고 7월 개최하기로 한 무안연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올 가을 개최 예정이던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1년 연기될 전망이다. 올 7월 열기로 한 무안연꽃제도 취소됐다. 26일 전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최근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수목비엔날레를 1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해외작가들의 참여가 어려운 데다 국내·국제 학술심포지엄, 청소년 수목레지던시, 아트체험 등 관련 행사도 진행이 어렵다는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등교개학, 생활방역 성공 가늠 시금석... 학부모 마음으로 만전"

"재난지원금 소비진작에 보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순차적인 개학이 예고된 것과 관련,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등교 개학은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됐고, 27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

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으로 확대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 나흘째인 25일 현재 전국에서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96명이 선별진료소로 이송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등교 개학에 대한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향해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이라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

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버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 줬다는 보도를 봤다"며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목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국민이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국민에게도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 절실한 분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증언조작 의혹 '한명숙 사건' 자체 진상조사 나설 듯

검찰의 증언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먼저 진상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신경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의 비방록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정치권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배경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비방록에서 한씨는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 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구속수감돼 있던 2010년 70여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론 등에서 '한명숙 사건'을 갑자기 들고 나온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끌고가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당시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은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삼기 위한 포석

이어나는 시작도 있다.

법무부의 재조사나 공수처 수사를 재심 청구로 가는 우회로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재심은 문턱이 높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심은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수사팀이 한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나 현재로서는 기소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검사 징계 시효도 지나 검찰도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최선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